

# FAO 곡물시장뉴스





##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 알제리 원산지 혼합 밀 화물 거부

알제리의 곡물 정부 기관은 프랑스가 수확 이전에 성립된 계약들의 밀의 품질을 증진을 위해 밀을 수입했다는 뉴스를 접한 이후 여러 원산지가 혼합된 밀 화물들의 수입을 거절 할 것이라고 무역가들에게 전했다고 로이터(Reuters)가 전했다. 지난 8월 21일 로이터는 유럽연합의 가장 큰 밀 수출국인 프랑스가 비에 흠뻑 젖은 밀의 저 품질을 상쇄시키기 위해 리투아니아와 영국산 밀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무역과 업계의 통신망들은 이 수입은 프랑스산과의 혼합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알제리 정부 기관인 OAIC는 이들의 입찰과 계약 규정들이 이러한 혼합물들을 금지하며 밀은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항구 출입구가 없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원산지로부터 직접 수입되어야 한다고 무역가들에게 상기시켜주었다.

“혼합이 감지되는 밀들은 우리로 하여금 화물을 거부하게 강요할 것이고, 염려되는 공급자들은 영구적으로 배제될 것이다.”라고 세계 최고 곡물 수출업체들을 포함한 여러 무역 업체들에게 보내진 편지는 전했다. OAIC는 이들이 이미 그 어떤 사기 행위라도 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용하였다고 말했다.

알제리는 3,5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입국들 중 하나로 지난 5년간 연간 500만 톤의 평균 수입량을 기록했다. 이는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 740만 톤과 2012년 690만 톤을 포함한다.

알제리는 프랑스가 2013/14년에 570만 톤의 밀을 수출한 국가로 최대 고객이며, 이러한 내용은 로이터가 지난 19시즈동안 기록한 프랑스 세관 자료가 보여주었다.

“알제리로의 프랑스산 밀 판매는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지만, 알제리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품질을 위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무역상은 말했다.

프랑스 밀 수확시즌 불과 몇 주전에 추운 날씨와 많은 량의 강우가가 타격을 주었다. 이제까지의 품질 검사에 의하면 이례적이지 않은 수량의 작물들이 알제리아를 포함한 유럽연합 이외의 전통 시장들의 제분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주요 우려사항은 밀의 제분 품질의 측정법인 해그버그 낙하 수의 약세이며, 이는 낮은 품질과 높은 높은 품질의 밀들을 혼합해도 개선이 어렵다.

알제리는 또한 특정한 무게와 단백질 함유량과 같은 높은 제분 필요조건을 갖고 있다. 이들은 현재 주로 해충 손상으로 인해 값싼 흑해 산 밀을 피하고 있다.

## ■ 중국 곡물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중국은 11년째 곡물 작물의 풍년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곡물 생산량에 비해 보관 창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딜레마로 빠트릴 위협을 갖고 있다.

정부 매체로부터의 전망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들인 쌀, 밀 그리고 옥수수를 포함한 1.5억 톤의 곡물을 정부가 보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작년의 7,500만 톤의 두 배이며, 이러한 농산품들의 과잉 공급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관리들은 항상 풍년을 갖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미 농무부의 경제학자인 Fred Gale이 말했다. “그들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곡물 대부분의 잉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으로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아와 싸우던 국가의 곡물 과잉 공급은 극찬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의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시장으로 이들의 잉여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강요되어 잠정적으로 가격을 더욱 끌어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부들의 수입을 높이도록 목표된 중국의 비효율적이고 비싼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노출시켰다. 이 정부는 어떻게 이들의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고 잉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부패성 상품들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조 프로그램의 정확한 양과 가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자료는 중국이 옥수수 생산량의 1/3을 구매한다고 판단되나, 정부 매체의 예상으로는 옥수수의 시장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떨어진 지난 2년간 36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비축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어떠한 상업적 바탕으로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설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런던의 Capital Economics의 경제학자 Thomas Pugh가 말했다. “이것들은 부패가 쉬운 상품들이기 때문에 품질저하가 시작될 것이다.” 그는 중국이 세계 옥수수 비축량 중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이러한 초과량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까지 5,000만 톤 이상의 곡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정부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소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들의 옥수수 소비량의 약 70%가 가축들을 위한 사료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시럽 또는 전분으로 가공된다.

이것은 미국의 작물 생산량 또한 호황을 누리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리나 중국의 가격들은 보조금으로 인해 높은 가격을 지속하고 있는 올해 중국에게는 특히나 성가신 문제이다. 그것은 중국 무역상들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해오도록 장려하게 되며, 이미 거대한 중국의 비축량을 약화시킨다고 베이징에 위치한 정부의 중국 농업 정책 센터의 소장인 Jikun Huang이 말했다.

미 농무부는 이번 달 미국 옥수수 생산량이 140억 부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작년의 기록적 수확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다. 중국의 다련 상품 거래소의 옥수수 거래가격은 월요일 기준으로 2,390위안(\$388)이며, 이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셸당 367센트의 옥수수 가격과 -톤당 약 890위안- 비교할 수 있다.

중국은 유전자 변형 종의 존재를 이유로 미국산 옥수수 수입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Huang씨는 이들이 보리나 수수와 같은 이외의 사료 대체물들을 수입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비축량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흑룡강성 주로부터의 옥수수 정부 경매는 계획을 빗나가, 이들 중 약 1/5만이 톤당 2,200위안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이는 “미국 사료 제분소들이 현재 옥수수 구매를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두 배 이상”이라고 미 농무부의 Gale씨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그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표했다. 정부 매체는 저장고의 부족이 문제이며, 중국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곡물 창고들을 방문하는 것이 사진 찍혔

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과 곡물 품질을 증가시키는데 집중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 안전 보장에 기여하도록 더욱 나은 구매, 판매, 그리고 저장을 위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고 리 총리가 말했다고 곡물 관행 웹사이트에 인용되었다.

## ■ 지급 준비금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환율의 역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은 9,600만 달러 감소하여 286.85억 달러에 가까워지며 적색구역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의 외화 준비금 1억 6,800만 달러 감소 이후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30일 디폴트에 접어든 이후 급격히 감소한 곡물 수출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하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6월 30일 디폴트부터 금요일까지의 곡물 수출 합의금은 총 16억 3,500만 달러로, 이는 2013년의 같은 시기보다 4억 1,300만 달러 낮은 것이며, 이는 Central Bank가 이들의 귀중한 외화 준비금을 더 이용해 폐소를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한다는 우려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장 출처들은 어제 감소가 에너지 수입을 위해 1억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 “8월과 7월을 비교할 때 (곡물 합의금에)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홀드아웃 문제의 결과로 인한 추측과 감소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출처는 말했다.

이 국가가 디폴트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토론은 이 정부와 별처 펀드가 2005년과 2010년의 재구축을 약화시킨 채무 불이행된 이 나라의 빚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7월30일 지속되었다. “최근 통화 합의금에 대한 하락은 올해의 2학기에 국제 수지가 겪을 수 있는 환율에 대한 압력을 조짐을 나타낸다.”라고 Elypsis 대표인 Eduardo Levy Yeyati가 말했다.

지난주 곡물 업체들은 작년의 같은 주보다 65% 하락한 2억 5,275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해외 판매 중 약 1/3이상이라고 CIARA와 CEC 수출 회의소가 보고했다.

어쩌면 더욱 악화를 시사하는 것은 곡물 합의 기록을 깬 2011년의 같은 주보다 판매가 86% 낮았다는 것이다. 수출 업체들의 판매가 갑작스러운 중단을 맞이하며, 이제까지 2014년의 합의금은 여전히 169.01억 달러에서 위에서 작년의 같은 시

기의 172.71억 달러 까지를 유지하지만, 이는 기록을 갱 2011년의 같은 시기 총 거래보다 1.41% 못 미쳤다.

## ■ 강우 피해를 입은 유럽산 사료용 밀이 아시아로의 판매에 피해를 끼칠지도

아시아 사료용 곡물 수입가들은 유럽의 많은 강우량이 고품질 작물들에 피해를 끼쳐 동물용 소비로만 이용이 가능해져 우크라이나와 프랑스산의 값싼 사료용 밀의 유입을 기대한다.

한국, 태국 그리고 필리핀은 옥수수 화물을 대신해 밀 화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커, 이미 미국의 기록적 생산의 기대로 인해 거의 4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맴도는 옥수수 가격에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사료용 밀의 부족은 없고 화물 운송료가 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멜버른에 위치한 ANZ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Paul Deane이 말했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외의 유럽 지역들에 내린 강우가 곡물들의 품질에 영향을 끼쳤다. 아직 프랑스의 품질 측정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상당량의 밀이 제분용 기준을 미달할 것으로 보여 동물용 사료 시장으로 유입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서부와 흑해 지역의 사료용 밀 생산량은 7,500만 톤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작년 산출량보다 약 1,300만 톤 늘어날 것으로 멜버른에 위치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필리핀과 태국의 사료용 제분업자들은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 화물들의 가격을 주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옥수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은 톤당 240달러(145파운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로의 비용과 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톤당 220달러에 거래되는 미국산 옥수수에 비해 높은 가격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 제분용 밀 가격이 밀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료용 밀 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밀 수출업자들은 흑해 지역 옥수수 농부들과의 경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을 감소할 가능성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곡물들의 풍년 수확과 더 이상의 파종을 위한 자금의 난, 그리고 겨울 파

종의 준비가 농부들로 하여금 판매를 가속화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가들을 수년간 높은 수출량으로 이끌고 있다.

유럽 서부의 농부들은 가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낮아 결국 그들은 더 많은 저품질 밀을 기말 재고량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무역업자들은 말했다.

아시아 사료 가공업자들은 옥수수보다 더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갖기 때문에 사료용 밀의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할 준비가 되어있을 수 있다. 옥수수는 약 8%의 단백질 레벨을 갖지만 밀은 비 피해에도 불구하고 11%를 함유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업 생산자들은 동물들의 소화가 쉬운 비를 흡수한 밀을 선호한다.

### ■ 2014년은 대부분의 작물들이 기록을 세우는 해가 아닐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농부들이 올해 또 한 번 기록적 작물을 수확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7월 농장 측정은 작년의 기록들 이후 밀, 카놀라 그리고 옥수수 곡물들이 더욱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농부들이 기대해도 된다고 전했다. 밀 총 생산량은 2013년에 비해 26.2% 감소한 2,770만 톤으로 예상되며, 카놀라도 22.6% 감소한 1,390만 톤으로 전망된다.

보리 생산량은 30% 감소한 720만 톤, 귀리 생산량은 32.1% 감소한 260만 톤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통계청은 측정 당시, 들판의 농부들이 6월말의 지나친 강우가 수확될 수 있는 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하나의 의외 사항은 대두 생산량으로 전년보다 70만 톤 증가한 590만 톤으로 전망했다.

### ■ 러시아 농부들이 곡물 작물들의 현금화를 서두르다

러시아 농부들은 서방 국가의 제재로 인한 농업부문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인해 은행 빚을 갚고자 곡물을 팔아 현금화시키기 위해 곡물 수출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 농부들은 작물 주기에 자금을 대기 위해 대출에 많이 의존하지만,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빠른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옥수수와 밀은 이미 세계적 풍년 수확으로 인해 4년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 무역상은 러시아의 남부지역에서 농부들이 곡물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러시아의 중부와 Volga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는 2008년의 경제난 그리고 2010년과 2012년의 가뭄에 실업을 피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통해 농부들을 지원했다.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최근의 난관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돕기에는 능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 달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반란군의 지원에 대해 이제까지 가장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가장 큰 대출 기관인 Sberbank와 러시아 농업 은행은 농업 부문에 있어 주요 채권자들로 유럽연합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유럽연합 자본 시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 농업 은행은 미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루블로 표기된 농업과 사냥부문의 부채는 7월1일을 기준으로 350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업부문에는 신용 자원 유용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러시아 회사인 Basic Element의 영농부문의 상무이사 Andrey Oleynik이 말했다. “모든 (러시아) 농업 부문은 수입된 식물 보호 상품들, 복합성 비료 그리고 씨앗들에 크게 의존한다.”

농업 부문으로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연초의 12~14% 범위와 비교했을 때 3~4% 증가했고, 이는 주요 중앙은행의 비율 증가가 초래한 것이라고 Oleynik은 말했다.

무역업자들은 이것이 빚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 러시아 농부들의 front-loading 작물 판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Front-loading은 대부분의 작물을 시즌 초에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이자 비율이 오르면, front-loading이 일어나, 사람들이 상품을 보유하느니 신용을 반환하기 위해 현금화할 것이다.”라고 한 무역업자가 말했다.

러시아 농업 은행은 지속적으로 약한 자산 품질을 보고했으며, 이는 2013년 말에 총 대출 중 23퍼센트를 차지하는 문제 대출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무디스 신용 평가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과거에 높은 문제 대출들은 기본적으로 약한 신용 판매 관습으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은행들이 대출해 주지 않는 비교적 약한 프로필을 갖는 대출자

를 포함한 폭 넓은 농업 대출자 범위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이 은행의 권한 방침을 반영한다.”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러시아는 7월 31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고, 작년 7월의 기록에 비해 250만 톤 증가한 것이라고 농업 컨설팅사인 IKAR이 말했다.

“사람들은 약 6,000만 톤의 밀 작물의 판매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다. 농부들이 계속 판매할 것이라는 것은 믿어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한 유럽 무역업자 말했다.

## ■ 중국 곡물 수입 증가

중국은 충분한 국내 재고량을 확신하고, 예상되지 않았던 공급량 위협을 예방하며 장기간 식량 안전 보장을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곡물을 세계 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곡물 수입의 융통성을 증가했다.

이 국가는 올해 첫 7개월 간 1,134만 톤의 주식 작물을 수입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80% 증가한 것이라고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는 밝혔다.

중국 사회 과학원의 농촌 개발원 부국장인 Li Guoxiang은 곡물 수입의 증가는 국가 식량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곡물이 콩류와 감자와 함께 주식 작물로 통하며, 식품은 곡물, 식용 식물성 기름, 고기류, 가금류, 알, 유제품 그리고 해산물을 포함한다. 이 나라의 곡물 수입은 밀, 쌀 그리고 옥수수를 주로 포함한다.

“세계적 주식작물 가격은 국내 시장 가격들보다 매우 싸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조리된 밀 식품들의 수요는 1월과 7월 사이에 오른다. 세계 시장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국가가 수입을 증가시켰다.”라고 Li는 말했다.

국내 밀 가격이 높은 가격을 지속하며, 많은 곡물 거래자들이 시장에 적절한 공급량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을 선택한다.

중국은 농부들을 가격 변동성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농산품에 대한 최저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정부는 밀, 옥수수, 목화 같은 상품들을 시장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떨어질 정부 비축량으로 구매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산품 가격들은 시장 주도적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수요와 공급 관계와 시카고 상품 시장과 런던 상품 거래소와 같은 상품 시장들의 기능 때문이다.

북경 중국 사회 과학원의 연구원인 Ding Lixin은 중국이 여전히 가격 규제를 위해 식량 비축, 최저가 구매 가격, 정부보조금들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국가의 최저 곡물 구매 가격은 지난 삼 년간 세계 수준 이상을 지속했으며, 이는 2013년에 대두, 옥수수 그리고 목화와 같은 상품들을 미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인도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도록 유발했다.

Ding은 만약 생산 수용량이 감소한다면 수입의 증가가 중국의 식품안전보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곡물 산출량 증가를 운영해왔다.

2014년에 여름 곡물 산출량은 기록적으로 높은 1억 3,660만 톤을 기록했고, 이는 작년보다 3.6% 증가한 것이라고 국가 통계청의 자료가 밝혔다.

“중국의 Henan, 서부 Liaoning 그리고 내 몽골 자치 지역과 같은 주요 옥수수 생산 주들에 닥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의 곡물 안전 보장이 악화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Ding이 말했다.

중국 사료 산업 협회의 부회장인 Wang Suiyuan은 많은 양돈장들이 생산량을 지속하기 위해 이미 옥수수를 대신해 밀을 동물 사료로 구매했다. 세계의 양돈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다런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옥수수 선물 가격에 따르면, 월요일에 옥수수 가격은 톤당 4위안 올라 2,380위안이 되었다. “유통성 있는 해외 옥수수, 밀 그리고 대두의 수입은 중국의 수자원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선택된 일부 지역들에서 이미 탈진한 농경지를 회복시키는 것을 돕는다.”라고 중국 사료 산업 협회의 Wang이 말했다.

## ■ 인도의 새 총리가 곡물 저장 시스템의 개조를 노린다

뉴델리에서 약 48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엔 주인 잃은 개가 들판에서 씹어가는 밀 포대기들을 지나다닌다. 이 곡물들은 인도가 해충과 습기에 노출된 채 길거리에서 저장하는 삼백만 톤 이상의 곡물들 중 한 부분이며, 이는 케냐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양이다.

Haryana주의 Sonapat에 위치한 저장소에서는 빈민인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 식품 유통 프로그램의 중심인 정부 기관 Food Corp. of India의 소유인 포대기들을 평범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두었다. 곡물이 부패하며, 2억 5,500만 인도 인구들은 여전히 하루에 2,100 칼로리 미만을 섭취하며 식량이 부족하다고 미 농무부의 자료는 밝혔다.

인도의 총리인 Narendra Modi는 이러한 문제를 패널을 구성해 50년 된 Food Corp. of India를 어떻게 정비할 것 인지에 대해 분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정부 관리 두 명이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계획이라며 익명을 요구하며 말했다. Modi는 이 기관을 개선하겠다고 맹세하며 5월 권력을 넘겨잡았고, 이는 경제 개혁 안건의 일부로써 이에 대한 진척은 다음 주 독립 기념일 연설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 집의 소비를 위해 밀 한 봉지를 구매했다고 치면, 당신은 길거리에 폴리에틸렌 봉지로 덮어 두겠는가?”라고 억만장자인 Gautam Adani의 Adani Enterprise Ltd.의 영농 사업 최고 경영자인 Atul Chaturvedi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소유의 밀을 그렇게 관리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그렇게 거대한 사업에 그렇게 하겠는가?”

식품부 대변인인 N.C. Joshi는 잠정적 개혁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Food Corp. of India의 회장인 C. Viswanath는 연결될 수 없었다.

인도의 식량 안전 보장 법은 이들의 12억 인구의 약 2/3에게 저가격 곡물들을 소비할 권리를 준다. Modi는 3월 31일 끝나는 회계 연도까지 190억 달러를 식량 보조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목표는 빈민인구에게 이러한 곡물들을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부패와 낭비들이 공급량들을 손실하는 위험이 있다.

밀과 쌀의 약 44%는 혜택을 받는 가정들로부터 전용된다고 인도델리공과대학에서 식품 안전 보장을 연구하는 Reetika Khera가 2011년 예상했다. Commission for Agriculture Costs and Prices를 맡았었던 Ashok Gulati는 수치를 40%로 본다.

Haryana의 Samalkha에서는 저장소에 파리들이 날리며 소들이 누워있다. 여기서 50km에 위치한 Karnal에서는 변색한 곡물들이 찢어진 포대들에서 쏟아져 나온다. Food Corp. of India의 직접적 감시하에 관리되는 밀들은 좋은 상태라고 Haryana 지점의 기관 부국장인 Davesh Kumar Yadav가 말했다. 그는 이 주 내에 약 14만톤의 플라스틱 시트아래 저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Food Corp. of India는 7월1일 을 기준으로 6,870만 톤의 밀, 쌀, 제분되지 않은 벼와 조립곡물들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필요조건인 3,190만 톤의 두 배 이상이라고 이들의 웹사이트는 밝혔다.

이 기관의 저장 수용량은 3,900만 톤으로, 이는 야외에 플라스틱시트아래 저장되는 330만 톤을 포함한다. 인도의 주들 또한 Food Corp. 의 재고들을 보관한다.

이 기관이 소유하는 지붕이 있는 창고들은 4월1일자로 1,3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8년 전보다 많은 변화가 없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금속 사일로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인도 또한 이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Adani Enterprises의 Chaturvedi가 말했다.

인도의 연간 곡물 산출량인 2.64억 톤의 5%만 썩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